새전북신문 CMYK

책속 상상여행 작가에 편지-토론 '생각이 쑥쑥'

연/중/기/획

창조력 교육 운동

제2부 창조력교육 실천하는 사람들

⑪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어린이독서교실

전주 최명희 문학관 강의실에서 어린이 독서교실에 참가한 50여명의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퀴즈를 풀고 있다.

초등회원 50여명 '내 꿈을 찾자' 토요휴무일 독후활동
책 내용 얘기 나누고 스스로 출제한 문제 퀴즈골든벨
주제가 있는 독서 프로그램 톡톡 튀는 생각 맘껏 표현

'저는 역사를 싫어하는 편이에요 .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재미있네요. '안장태왕과 구슬아씨' 이야기에서는 선생님의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33살의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시다니 놀라워요….'(김예담 전주 여울초 6학년)

'제목을 보고 재미없겠구나 했는데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어 3시간만에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우리나라 통일의 희망성을 보여줬고 몰랐던 고구려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게 해 준 점입니다.

작가님! 작가님은 어떻게 안장태왕과 구슬아씨의 설화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책이 있다면 한권 소개시켜 주세요. 작가님이 책으로 준다면 더욱 좋구요 . 그리고 '주몽의 알을 찾아라 ' 뒷이야기 즉 수한, 현우, 룡길, 금옥이의 다른 모험 이야기도 꼭 써주세요….'(오승준 전주 송북초 6학년)

토요휴무일인 지난 28일 오전. 전주 최명희 문학관 강의실에서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50여명이 독서교실에 참가해 류정아(38·전주여울초)교사의 진행으로 작가에게 편지쓰기를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에서 읽어 온 '주몽의 알을 찾아라(푸른책들)'를 다시 들춰보며 읽으면서 느꼈던 감흥을 떠올려 보고 중간 중간 궁금했던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편지에 적는다.

작가에게 부탁사항까지, 생각의 생각을 짚어가면서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편지지에 펼쳐 나간다 . 이 편지지들은 한꺼번에 작가에게 전달될 예정. 송명지(서일초 5학년)양은 "직접 작가가 읽어보고 어떤 답장을 보내올지 기대가 된다"며 들뜬다.

(사)전북 청소년 교육문화원 (원장 최순삼·순창 복흥중 교사) 교사들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마련한 어린이 독서교실이다. 지난해까지는 행사가 열릴 때마다 학생들을 모집했지만 올해부터는 1기 회원을 뽑아 상반기동안 네권의 책을 학생들과 함께 보고 있다.

지난달에 수업을 마친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과 이날 수업을 한 '주몽의 알을 찾아라', 그리고 '안내견 탄실이(대교출판)', '샬롯의 거미줄(시공주니어)'이 상반기 주교재들.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을 읽으며 '나의 꿈을 찾자'는 주제로 네 권을 선정했다.

류 교사는 작가에게 편지쓰기를 하기 전에 학생들과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누며 퀴즈 문제 내기를 주문했다. 고구려 안장태왕과 백제 처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주몽의 알'이라는 허구의 유물을 설정한 창작 판타지다. 내용을 이해하며 꼼꼼히 읽었는지를 보기위해 퀴즈 골든벨을 독후활동으로 정했다. 문제는 교사가 출제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써내고 난이도까지 설정했다.

'구슬아씨가 성조의 성에 갇혀서 읊은 시를 단채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한 주가 읊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의 이름을 쓰시오 (난이도 별3개)', '현우의 엄마 아빠직업과 비슷한 종목을 2가지 대시오 (난이도 2)' 아이들이 문제를 난이도에 따라 세문제씩 출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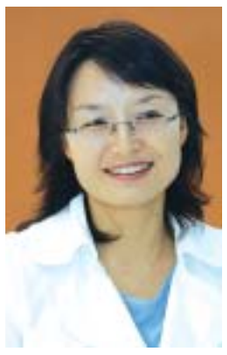
류 교사는 "퀴즈 골든벨도 학생들이 흥미로워 하는 독후활동인데 교사가 문제를 내지 않고 학생들이 난이도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면서 나름대로 기발난 창의력을 발휘한다"며 "자신들이 낸 문제를 풀면서 더욱 뿌듯한 성취감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들고 학생들은 최명희 문학관 앞 뜰로 나가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책 퀴즈를 풀며 즐거운 토요휴무일 오전을 보냈다.

이 단체는 역시 토요휴무일을 이용해 전주 완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간 성자'를 주제로 독서 토론을 벌인 데 이어 내달 12일에는 카프카의 '변신', 6월9일에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주교재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독서활동 사고폭 넓게 키워

■류정아 여울초 교사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자기 안에 와 닿게 읽는 작업을 독서교실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28일 어린이 독서교실을 진행한 류정아(38·전주 여울초)교사는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는 것은 사고의 폭을 훨씬 넓게 확장 시킨다"고 말했다.

류 교사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기억나는 한 장면이나 전체 줄거리에 대해 책만들기를 하거나 퀴즈풀이, 토론하기 등의 과정을 통해 생각이 쑥쑥 자라는 것 같다"며 "판에 박힌 느낌 서술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의 톡톡 튀는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어린이 독서교실을 이끌고 있는 소모임 초등 책읽기 교육연구회 '읽/고/살/고(회장 김진성)' 회원이기도 한 류 교사는 2주에 한번씩 10여명의 회원과 모임을 가지면서 주제가 있는 독서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적용에 대해 공부하고 묘안을 짜내기도 한다.

또 담임을 맡은 여울초 6학년 교실에서도 '책 돌려 읽기' 등 효율적인 독서 교육의 방편을 실천한다. 류 교사는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읽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해보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며 "학급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책을 읽고 계발활동 시간 등을 통해서 독서활동이나 토론 등을 전개한다"고 소개했다.

류 교사는 "교사나 학부모나 아이에게 읽기를 강조하기보다는 같이 읽고 서로 공감대를 갖는 것이 독서의 큰 힘이 될 수 있다"강조했다.

글=이기재기자 haidi95@sjbnews.com
사진=이원철기자 kppa3@sjbnews.com

한학급 같은 책 읽고 다른학급 대여 독서수업

■ 읽/고/살/고 '독서 프로그램

학급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책을 구입해 읽고 다른 학급으로 책을 모두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마다 학급 문고에 다양한 책이 있긴 하지만 학급 아이들이 모두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거나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에 창안했다.

초등책 읽기 교육연구회 '읽/고/살/고' 김진성(전주 송원초)교사와 류정아(전주 여울초)교사 등 10여명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한 학급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을 모두 구입해 읽었다면 이 책은 2주간다른 학급으로, 또 다른 학급으로 연속 대여되고 이 학급은 다른 책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학급 전체가 10여권의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다.

이런 학급 전체 책읽기는 자연스레 독서수업으로 이어진다. 도서관 활용 수업시간이나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해 각종 독서활동을 펼치고 토론을 나누기도 한다.

김진성 교사는 "자신이 구입해 읽은 책을 1년여간 다른 학교 다른 친구들이 읽고 표지 안쪽 느낌 메모란을 적은 걸 보며 아이들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며 "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동참하며 흥미를 갖게 되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CMYK